



맥주와 위스키 그 이상: 잇 일본 여행의 숨겨진 보석, 일본 와인

일본 여행에서 술이라면 보통 맥주나 위스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당신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와인 쇼핑,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불안감 (The Anxiety)

‘MBTI I(내향형)’ 인간에게 한국의 와인 샵은 고난이도 미션입니다. 직원이 다가오면 식은땀부터 나고, 빈손으로 나가기 미안해 아무거나 집어 들게 되죠.



부조화 (The Mismatch)

비싼 돈을 주고 사도 한국인의 입맛에 묘하게 맞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린 적이 있지 않나요?



동아시아인의 ‘터치’가 들어간 술

공유하는 D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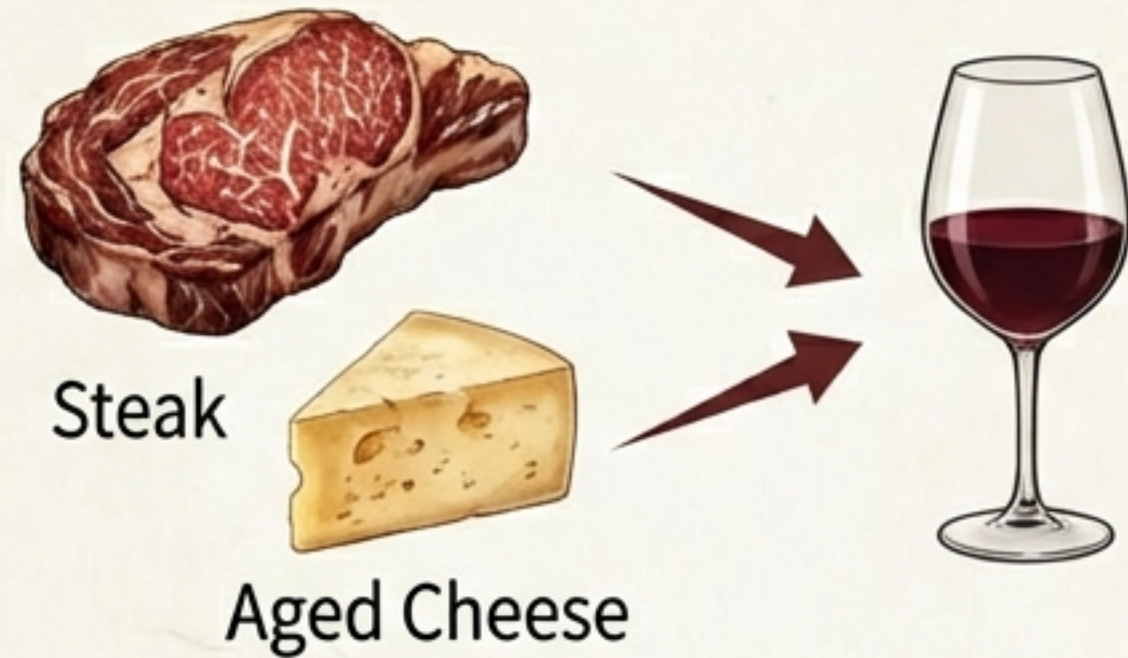
일본 와인은 다릅니다. 같은 쌀 문화권, 비슷한 식재료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든 술이기 때문입니다.

실패 없는 선택

직원의 설명 없이 라벨만 보고 골라도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동아시아인의 입맛에 ‘착’하고 달라붙는 성공적인 한 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버터와 치즈가 아닌, '다시(出汁)'와 '간장'을 위한 와인

서양식 와인 로직



타닌 & 산도 vs 기름기

유럽 와인은 붉은 육류의 기름기를 씻어내기 위해 타닌과 산도가 발달했습니다.

일본식 와인 로직



와인 vs 감칠맛 (Umami)

반면, 일본 와인은 국물(다시)과 간장의 '감칠맛(Umami)'을 해치지 않고 은은하게 받쳐주도록 진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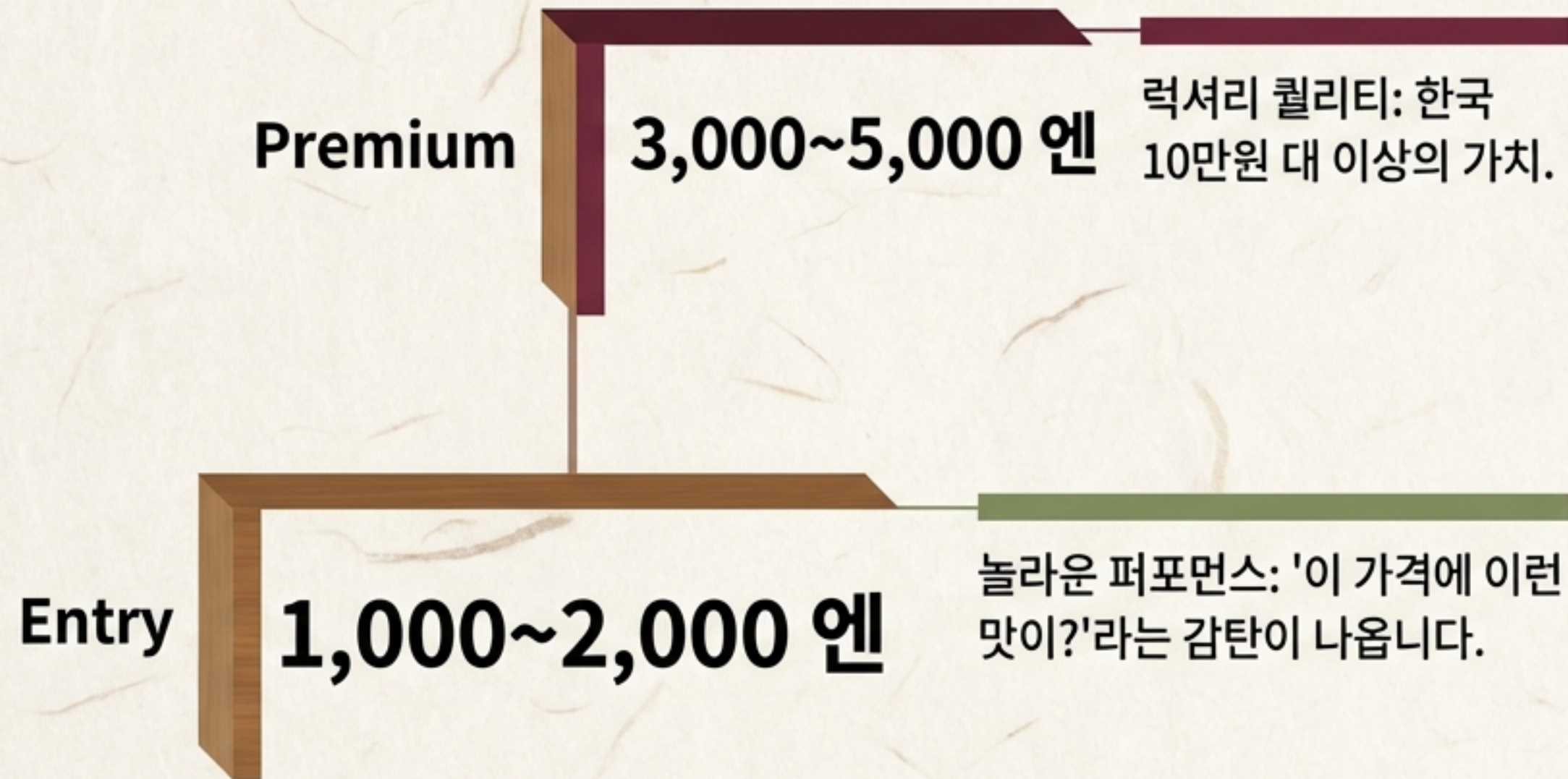
스시부터 편의점 컵라면까지, 완벽한 식중주

향이 강한 오크통 숙성 와인은
섬세한 회 맛을 덮어버리지만,
일본의 '고슈(Koshu)'나
'머스캣 베일리 A'는 다릅니다.



여행지 숙소에서 야식으로 먹는
튀김, 어묵탕, 심지어 컵라면까지.
모든 '간장 베이스' 음식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한국보다 훨씬 '착한' 가격, 숨겨진 가성비



주류세 혜택 (Tax Benefit)

한국의 주류세와 비교하면 일본 와인의 가격은 그야말로 '착함' 그 자체입니다.

5천 엔 정도를 투자한다면 한국에서 10만 원을 줘야 느낄법한 럭셔리한 퀄리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따라붙지 않는 'I형 인간'의 천국



부담 없는 쇼핑 (No Pressure): 굳이 전문 와인 샵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숙소 근처 ‘칼디(Kaldi)’나 ‘이온(Aeon)’ 슈퍼마켓으로 가세요. 직원의 시선을 피해 번역기 카메라를 켜고 느긋하게 라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큐레이션 (Great Curation): 일본 슈퍼마켓 바이어들의 큐레이션은 수준급입니다. ‘스태프 추천’, ‘어울리는 안주’ 팝업만 믿고 골라도 성공입니다.

편의점 PB 와인의 반란



심지어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자체 브랜드(PB) 와인조차 웬만한 데일리 와인 뺀치는 맛을 자랑합니다. 심리적 장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와인을 집어 들 수 있는 완벽한 환경입니다.

한국에서는 만날 수 없는 '희소성'



내수용 (Domestic Only): 일본 와인은 생산량이 적고, 그 대부분이 일본 내수 시장에서 소비됩니다. 유명 브랜드를 제외하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레어 아이템 (Rare Item):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레어템'을 현지에서 마셔보거나 집으로 가져오는 것. 여행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밤, 맥주 대신 와인 한 병 어떠세요?



술 1병의 역사를 알고 마시는 것과 그냥 마시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0년의 이야기와 동아시아의 입맛이 담긴 일본 와인. 여행의 밤을 채우는 가장 우아하고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